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http://www.jthink.kr

보도시점 : 2019년 7월 16일(화)부터

▪ **문 의** :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연구위원
(063-280-7191, 010-2622-2924)
▪ **담 당**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통계지표로 보는 전북 여성의 현황과 삶의 현주소

여성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,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평등한 일터조성, 치매예방을 위한 여성노인 건강관리 정책 필요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통계지표를 통해 전북 여성의 변화 및 주요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『2019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』 이슈브리핑(200호)을 발간하였다. 본 이슈브리핑은 통계청이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발표하는 여성관련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일부 통계지표를 추가·보완하여 작성하였다.

○ 여성인구 변화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와 교육문제에 따른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~24세의 청년여성 인구유출은 남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. 이는 전체적인 가임여성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전북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전북의 인구정책은 '인구증가'에 초점을 두기보다 일자리와 주거지원 등 '삶의질 제고'를 통한 청년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.

○ 2017년 기준 전북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.2%에 해당하고 이중 여성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의 52.9%로 과반수를 상회하고

있으며 전국 평균 50.3%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비중은 70~79세가 23.1%로 가장 높아 남성 (7.6%)보다 15.5%p 높고 전국 평균(17.1%)보다 높다. 따라서 주거·안전·경제·복지 등에 취약한 (여성노인)1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.

○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여성비율은 30.4%로 남성 19.2%에 비해 높으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0.5% 수준에 불과하여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.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49.6%, 남성 70.7%이며 경력단절여성은 기혼여성 총 인구의 16.0%에 해당하는 등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평등한 일터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전북여성의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2010년 39.8%에서 2018년 47.0%로 7.2%p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여성비율(44.5%)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. 노후를 준비하는 전북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52.2%에서 2017년 58.0%로 5.8%p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○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는 악성신생물(암)로 남성이 여성보다 1.6배 많지만 알츠하이머(치매)는 여성이 남성의 3.6배로 나타났다. 전북은 80세 이상의 고령층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의 2배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인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여성노인 대상의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가 요구된다.

○ 조경욱(연구책임)박사는, 이번『2019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』 이슈브리핑이 전북여성의 현재 위치와 삶의 변화, 남녀의 성별격차 현황 등에 대한 일반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향후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